

유엔기후변화협약, COP26 대비 국가온실가스배출목표(NDC) 종합보고서 발표  
“전지구적 기후행동 불충분”  
“이대로 가면 파리 기후협정 목표 달성 못해”

2021.02.26.자 WMO 기사  
APCC 전문위원 김세원 번역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종합보고서 초기 버전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국가들은 파리협정에서 결의한 “21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 2℃ 상승 제한(이상적으로는 1.5℃)”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간의 노력을 배가하고 더욱 강력하고 야심찬 2021년도 국가기후행동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파리협정 서명 당사국들의 요청에 의해 출판된 것으로, 오는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릴 제26차 기후변화총회(COP-26)에 앞서 국가기후행동계획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출된 75개 당사국들의 NDC를 종합한 것인데, 신규 혹은 보완된 국가별 목표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들이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세계 배출량의 약 30%에 해당한다.

유엔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의 말:

“2021년은 지구 기후 비상사태에 맞선 우리 대응의 성패가 갈리게 될 중요한 해입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려면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수준의 45%를 줄여야 한다고 말이죠. UNFCCC가 오늘 발표한 이 임시 보고서를 보면 지구가 적색경보 상태임을 말해 줍니다. 이는 정부들이 야망수준 즉 기온 상승을 1.5℃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배출국들은 금년 11월에 열릴 유엔기후변화총회가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2030년

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훨씬 더 야심차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50년까지 순 제로 배출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자 하는 전 지구적 움직임이 정부, 기업, 투자자, 도시, 지역 및 시민 사회 가운데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복구 계획은 더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의사결정자는 말한 것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장기적인 약속은 그에 맞는 즉각의 행동들로 채워 지켜져야 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작은 행동이 쌓이면 사람과 지구가 그토록 간절히 필요로 하는 10년의 변화를 일궈낼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가가 배출량 감축에 대한 개별 목표 수준을 높였지만, 이들의 목표대로 경로를 따라도 2030년까지의 감축량은 2010년 수준의 1% 미만일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은 온도 상승폭 1.5℃ 제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배출 감축 범위가 45% 이상 낮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UNFCCC 사무국장 패트리샤 에스피노자의 말:

“이 보고서는 현재의 기후야망 수준이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밟아야 하는 경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더 강력한 기후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쪽으로 정치적 측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지만, 이제는 모든 곳에서 기후 행동이 더욱 빠르게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COP 26이 이 세상이 녹색이며, 깨끗하고, 건강하며, 번영하는 길로 접어들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UNFCCC 사무국장은 이번 종합보고서 초기 버전이 NDC의 전체 그림이 아닌 하나의 스냅샷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2020년 말까지 제출을 완료한 많은 국가가 코로나-19가 안긴 심각한 도전에 시달렸고 제출한 NDC에 그런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다. 사무국장은 COP26이 열리기 전에 두 번째 보고서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아직 NDC를 제출하지 않은 주요 배출국들은 가급적 조속히 완료해서 최종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